

투데이 칼럼

진정한 소통

소통은 개인, 기업, 정부를 막론하고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은 시대이다. '소통(疏通)'은 '막힘이 없이 통함'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단어로 '함께 나누다'는 라틴어에서 기원한다.

진정성 없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보 전달에만 치중하는 소통은 안 된다.

배려나 경청이 소통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상호 긍정 속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스피치학을 강의하면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소통과 스피치의 기본원칙은 진정성이며 이것은 가정, 기업, 단체 등 어디에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중요시 해야 하는 덕목이다.

말뿐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성의 의미를 실천해야 하지만 이런 소통의 노력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김양욱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교수

매일 전화, SMS(문자), 대화, 스킨쉽 등으로 실천해야 한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도 대화의 단념을 주선하고 접근할 때 어떤 어려운 소통도 해결할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조직 내부에서도 미팅을 자주 하여 내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내부협력의 핵심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임을 믿고 생활하여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과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때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진정한 소통이 될 때 직장, 단체, 기업, 공직, 가정에 이르기까지 성공적 경영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퍼터 드러커 산업평론가도 '경영, 관리'의 영역에서도 소통에 의하여 좌우된다'라고 설명하였다.

필자도 전북지역에서 스피치학을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일반인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문자, 전화, 편지, 보도(광고), 정보 공유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전북지역에서 스피치학 학습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여시킨 적도 있으며, 코로나 시

대에도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도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상호 인정하고 배려와 소통을 인내를 갖고 노력해보면 합리적이고 합당한 내용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하찮은 질문이라도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말의 의중을 잘 판단하여 서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다면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도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합과 보람을 갖게 하고 현대의 경영, 관리의 이치 형성까지도 많은 도움이 된다.

현대는 소통과 감성 표현의 시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전북지역에서 스피치학 학습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여시킨 적도 있으며, 코로나 시

사설

일제강점기 독립야학당

1920년대 고창 독립야학당(竹林夜學堂)의 야학당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는 고창 출신 김경식씨가 전북에서 발생한 항일민족운동을 정리한 '호남항일민족교육연개사'를 출간하면서 드러났다.

지은이는 고향의 후배 전병익씨가 자기의 고향인 무장면 죽림(竹林)마을에서 집안의 어른들이 운영해온 독립야학당의 자료를 접했다. 1926년 봄 전주 잠업학교를 졸업한 천배봉(千配鳳)이 고향에 내려와 잠업 기수를 포기하고 뽕나무밭을 마련해 잠업에 종사했다.

그해 겨울 동짓날 야학을 만들기 위해 사람방의 뒷목 한쪽을 빌렸다. 호롱불 밑에 5~6명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보다 2년 앞선 1924년 고창 고보를 졸업하고 다음해 돌아 일보 고창지방 기자로 활동한 울촌 천기호(千冀鎬)는 1928년 독립야학회를 건립하여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위의 계몽운

동을 벌였다. 하지만 일제의 횡방으로 인해 1943년 중단됐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항일민족교육전사를 밝힌 지방의 연구서는 아직까지 없었다. 김경식씨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관련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2.8 동경유학생독립운동과 대표 백관수, 3.1독립운동과 호남 학생의 참여, 광주 학생운동, 교육구국, 사회교육운동 등 모두 4개의 장으로 엮어졌다. 유학생들의 항일 운동인 동경유학생의 2.8독립운동을 상세하게 다뤘다.

고창 출신 백관수의 기상도 소개했다. 고창의 흥동(興東)장학회와 1920년대 호남야학을 인식한 고창 무장 죽림(竹林)야학회의 생생한 자료도 공개했다.

흥동장학회의 노진영은 1980년 건국포상, 이석열은 1983년 대통령 표창, 이종택은 1982년 대통령 표창, 이종수는 1986년 대통령 표창을 각각 받았다.

익산시 홍보대사에 거는 기대

가수 김용임이 익산시 홍보대사로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9월 가수 김용임을 비롯한 호남지역 팬클럽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해에 이어 5번째다. 김용임은 익산 출신이자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트로트 가수다. 그는 익산시 홍보대사로 2년간 활동하며 지역을 널리 알리는 역할에 동참하게 된다.

김용임은 1984년 KBS 신인가요제에서 '목련'으로 데뷔했다. 이후 지금까지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발표된 '사랑의 밭줄' 노래를 통해 트로트계 대세 반열에 올라 활약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나는 트롯가수다' 우승과 지난해 한국가요작가 협회에서 최고 가수상을 받는 등 꾸준히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홍보대사(弘報大使)는 특정 국가 기관 또는 단체, 기업의

업적, 사업,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한 직책이다.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며, 단기간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때이다. 홍보대사를 임명해 SNS 중심으로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캐릭터 및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홍보는 고려 타분하다는 편견을 깨야 한다.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위해 캐릭터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홍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익산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익산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더욱더 활약하는 모습과 함께 지역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언택트 (Untact) 투표는 k-voting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인터넷 산업 발달로 인하여 언택트(Untact, 비대면)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일부 식당에 무인단말기(키오스크)와 음식 서빙 로봇이 등장하였다. 인터넷 전문 은행도 생겨나 계좌 개설 및 대출 등 업무를 방문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분야 기관·단체 등의 주요 안전도 'k-voting'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k-voting'이란 각종 공공분야 기관·단체의 의사 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투·개표를 실시하여 사용자

가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돕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말한다. 2013년부터 시작한 k-voting 서비스는 2021년 11월 기준 총 1,745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자 이용 만족도가 92.37%에 다다른다.

'k-voting'의 첫 번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편리하고, 투표가 종료됨과 동시에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이용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가 가능하여 선거관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



김유화

무주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고, 참여 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어 대표성 확보에 유리하다.

'k-voting'의 두 번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선거의 보안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통신사 본인인

증, I-PIN 인증 서비스를 적용하고 개인 URL을 부여하여 대리투표를 사전에 막고 있으며, 동일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통하여 기투표자 이중 투표를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투표 값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개표 값 완전 분리를 통하여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k-voting'은 선거 참여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선거방식으로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방식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분야 기관·단체 등에서 'k-voting'을 도입하여 온 국민이 스마트폰 하나로 투표하는 날이 올 것을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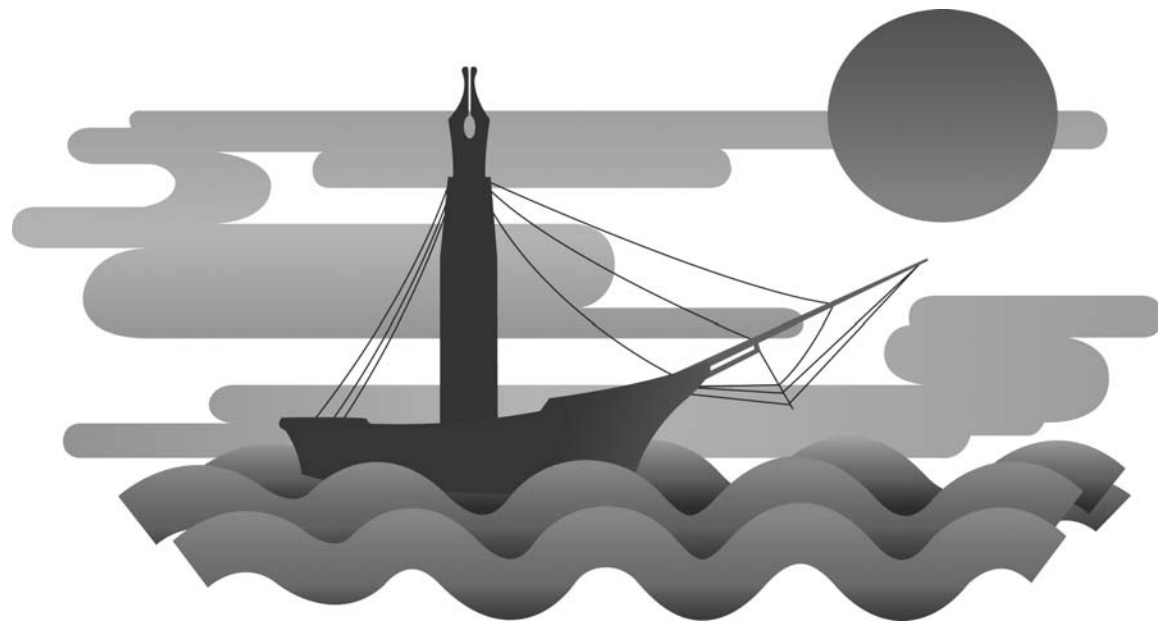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